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6

AUTUMN



강수환 교수 · 비뇨의학과

원 고 모 집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환우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병원 소식지에 싣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분량 : A4 2~3매의 원고

○ 사연 보내실 곳 : pr3700@daum.net 또는 고객센터(3동1층)

독 자 Q U I Z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원보에 모든 정답이 있는 답이 보이는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 2026년 11월27일(금)까지

추첨결과 : 2026년 12월 중



지금 바로 카메라를 열어
Quiz 정답을 남겨주세요

독자퀴즈 바로가기



CONTENTS



Kosin Spirit

04 'Team Thando 2026'을 마무리하며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Medical Essay

06 로봇수술 2000례, 환자와 의사가 함께 걸어온 시간 강수환 교수·비뇨의학과

10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은혜, 첨단재생의료로 만나다 신호식 교수·신장내과

Kosin Inside

15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의 꿈을 펼치다

18 여덟 번째 우.부.소 - 의료정보관리실

22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권민경·간호대학 4학년

24 꿈에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첫 의료선교 진태량·간호대학 1학년



Culture & Life

27 가을에 피어난 달개비 꽃 정대운

30 낙동강 변, 민족의 영산... 김해 백두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34 노동은 영혼을 살찌우는 밥 김희자·수필작가

38 칭찬 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40 우리 병원 친절직원

41 포커스뷰

45 진료를 시작합니다

44 + KOSin 사랑in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46 진료시간표



2026. AUTUMN

발행인 최중순 | 발행일 2026년 9월 | 편집인 이형석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 051)990-3700~2 |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Team Thando 2026’을 마무리하며

글 | 김영대 · 원목실장

Thando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어(Zulu)와 코사어(Xhosa)에서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뜨거웠던 지난 여름, 90명이 'Team Thando'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달랐지만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소외와 아픔을 경험해 온 아프리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 우리는 지난 3월부터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연구팀은 아프리카에서 자궁경부암이 퇴치되는 날을 꿈꾸었고, 수술팀은 에스와티니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보건사역팀과 어린이사역팀은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더욱 건강한 미래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섬겼습니다. 건기와 겨울임에도 쏟아진 엄청난 빗줄기조차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Team Thando'의 열정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수고보다 오히려 받은 감동을 이야기하셨고 우리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신 선교사님들 역시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죽고 복음으로 사는 Team Thando'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Team Thando 2026'의 공식적인 사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현장 선교사로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존재할 때, 그 삶 하나하나가 다시 모여 'Team Thando 2027'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헌신이 해마다 쌓여갈 때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Team Thando 2026'은 아프리카 땅을 직접 밟았던 90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병원과 복음병원 교직원선교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복음 가족들 그리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함께 만들어 낸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또한 귀한 재정과 기도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교회와 단체, 기업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섬김을 하나로 묶어 준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병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역은 끝나지만 선교는 계속됩니다. 'Team Thando 2026'에서 'Team Thando 2027'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과 헌신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

Forever Team Thando, Forever Gospel Hospital!

Soli Deo Gloria!

로봇수술 2000례, 환자와 의사가 함께 걸어온 시간

글 | 강수환 교수 · 비뇨의학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로봇수술센터

얼마 전, 저희 병원 로봇수술센터가 누적 2000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뇨의학과뿐 아니라 유방외과, 산부인과, 간담체외과, 이비인후과, 대장항문외과, 위장관외과, 흉부외과 등 여러 진료과가 함께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 안에는 2000명의 환자분과 가족들이 겪었던 걱정, 그리고 수술 후 되찾은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로봇수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편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번 2000례 달성은 단순히 숫자를 채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진료과가 함께 쌓아온 노하우와 협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집도의뿐 아니라 마취과, 간호부, 수술실 인력들이 함께 손발을 맞춰온 시간이 쌓이면서 수술의 안전성과 효율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로봇수술, 로봇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로봇이 수술을 대신 해주는 거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콘솔이라는 조종석에 앉아 로봇 팔을 하나하나 직접 움직입니다. 로봇은 손 떨림을 걸러주고, 사람 손목보다 훨씬 자유롭게 회전하는 정교한 기구를 대신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복강경은 젓가락을 움직여 물건을 집는다면 로봇은 마치 손가락같이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배를 크게 여는 개복수술과 달리 절개 부위가 작고, 기존 복강경수술보다 기구를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좁고 깊은 곳도 섬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비뇨기 장기들이 대부분 골반이나 복강 깊숙한 곳, 혈관이 많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이런 장점이 특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비뇨의학과에서 로봇수술이 활약하는 분야

전립선암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좁은 공간에 자리잡고 있어, 암을 제거하면서도 배뇨·성기능을 최대한 지키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로봇수술의 확대된 시야가 이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암의 경우, 종양만 정확히 도려내고 나머지 정상 신장 조직은 최대한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장은 혈관이 매우 풍부한 장기라 자칫 출혈이 많아질 수 있는데, 로봇의 정밀한 기구 조작 덕분에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종양만 골라내는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7cm가 넘어가는 큰 종양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절제하고 봉합하거나 후복막을 이용해 복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술기의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광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 방광을 부분 또는 전체 절제해야 할 수도 있는데, 방광 전체를 제거하는 근치적 절제술은 수술 범위가 크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로봇수술을 통해 작은 절개로 이 복잡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회복 기간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도 로봇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석이 크거나 요관이 좁아져 있는 등 복잡한 경우, 결석 제거와 동시에 요관 협착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반적인 요로결석은 체외충격파나 요관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고, 로봇수술은 큰 결석이나 복잡한 케이스에 주로 활용됩니다.)

다른 진료과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외에도 여러 진료과에서 로봇수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방외과에서는 유방암 수술에 로봇을 적용해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유방 모양을 최대한 살리는 수술이 늘고 있고, 산부인과에서는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암 수술에 로봇을 활용해 회복 기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간담체외과는 간, 담도, 췌장처럼 혈관과 장기가 촘촘히 붙어있는 부위를 다루는데, 로봇의 정밀한 조작이 출혈을 줄이고 합병증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장항문외과와 위장관외과에서는 대장암, 위암 수술에서 림프절 절제부터 장 연결까지 로봇으로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고, 흉부외과는 폐암이나 종격동 종양 수술에서 갈비뼈 사이 좁은 공간을 다루는 데 로봇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역시 두경부 종양 수술에 로봇을 도입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진료과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씩 쌓아온 경험이 모여 2000례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환자분들이 체감하는 변화

절개 부위가 작다 보니 수술 다음날부터 걸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입원 기간도 짧아집니다. 출혈이 적어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드물고요. 무엇보다 정상 조직과 신경, 혈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보니 수술 후 삶의 질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뇨의학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진료과에서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진료과마다 다루는 장기와 질환은 다르지만,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작으며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점은 로봇수술을 경험한 환자분들이 한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2000례를 지나오며

처음 로봇수술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술 시간은 짧아졌고 합병증은 줄었으며, 환자분들이 수술 후 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더 많은 과에서 더 많은 수술들이 로봇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모두 달랐고, 그렇게 쌓인 경험이 다음 환자분의 더 안전한 수술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00이라는 숫자는 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며, 저희는 앞으로도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2000례 기념 심포지엄

지난 2026년 6월에는 2000례 달성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비뇨의학과를 비롯해 유방외과, 산부인과, 간담췌외과, 이비인후과, 대장항문외과, 위장관외과, 흉부외과 등 로봇수술에 참여해온 여러 진료과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수술 경험과 성과를 나누고, 앞으로 로봇수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는 비뇨의학과를 찾아주세요

-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배뇨 횟수가 늘었을 때
- 통증 유무와 상관없이 혈뇨가 한 번이라도 보였을 때
- 옆구리 통증이 반복되거나, 건강검진에서 신장 결석·혹이 우연히 발견됐을 때
- 50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비뇨기 검진을 권해드립니다.

맺으며

로봇수술이 모든 상황에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판단입니다. 다만 지난 2000례를 지나오면서 확실히 느낀 건, 더 정확하고 덜 아픈 수술을 향한 노력이 실제로 환자분들의 일상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수환 교수 | 비뇨의학과

전문진료분야 | 로봇수술, 비뇨기암, 결석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은혜, 첨단재생의료로 만나다

글 | 신호식 교수 · 심장내과



이 글에서 꼭 기억할 3가지

1. 첨단재생의료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첨단 기술로 돕거나 손상된 조직·세포·장기를 새로 만들어 채워 넣는 치료법입니다.
2. NK세포(자연살해세포)·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같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이미 병원 진료실에서 쓰이고 있으며, 국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70%가 세포치료일 만큼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국가 지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서, 지역 연구개발 사업 참여·전문기업 협력·GMP 시설 구축이라는 세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첨단재생의료란 무엇인가

"첨단재생의료"라는 말은 낯설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친 피부 대신 붙이는 인공 피부, 백혈병을 낫게 하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자체를 고쳐서 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처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거나 아예 새 조직·세포·장기를 만들어 채워 넣는 치료법을 통틀어 재생의료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처럼 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 들어간 치료를 "첨단재생의료"라 하며,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관련 법을 만들어 이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병원이 첨단재생医료를 연구하거나 치료에 쓰려면 정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따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이 지정 자체가

병원의 준비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생의료가 걸어 온 길과 지금의 모습,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고,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준비 상황도 소개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처음부터 스스로 회복·치유되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데(시편 139:14), 첨단재생의료는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과학의 언어로 풀어내려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재생의료의 과거: 신화에서 시작해 현실이 되기까지

사실 “몸이 스스로 다시 자란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매일 밤 간이 다시 자라나는 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모습을 꿈꿔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오랜 상상이 과학으로 이어진 것은 20세기 초, 외과 의사 알렉시 카렐이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와 함께 장기를 몸 밖에서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기계를 만들면서부터이며, 이것이 오늘날 세포와 조직을 배양하는 기술의 먼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68년에 처음 성공한 골수 이식은 오늘날 백혈병 같은 혈액암 환자를 살리는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화상 환자를 위한 인공 피부가 상품으로 나오면서 조직공학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때 나온 제품들은 지금도 당뇨발 궤양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사람의 배아줄기세포가 처음 분리되어, 온몸의 어떤 세포로도 자랄 수 있는 세포를 실험실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6년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어른의 피부 세포를 거꾸로 되돌려 줄기세포처럼 만드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 기술을 개발한 것은 이 분야에 노벨상을 안겨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배아를 쓰지 않고도 원하는 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윤리 논쟁도 줄고 연구하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유전자 조작으로 강하게 만들어 암을 공격하게 하는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세포 치료제가 등장했습니다. 백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미국의 한 소녀가 이 치료를 받고 완치된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는 2017년 미국에서 처음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고, 재생의료는 신화 속 상상이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쓰이는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3. 재생의료의 현재: 병원 진료실로 들어온 치료법

지금 재생의료는 실험실을 벗어나 빠르게 병원 진료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에서 사람의 만능 줄기세포로 만든 치료제를 시험하는 정식 임상시험이 115건, 참여 환자는 1,200명을 넘었고,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안전성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골수나 지방이 아닌 탭줄에서 얻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 이식 후 거부반응이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병에 실제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특히 주목받는 것은 자연살해세포, 즉 NK세포(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환자 자신의 세포가 아니라 건강한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세포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서, NK세포(자연살해세포) 치료는 "바로 쓸 수 있는" 치료제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NK세포(자연살해세포)는 조직형이 정확히 맞지 않아도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어, 만들고 공급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여기에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덧붙인 CAR-NK 치료는, 기존 CAR-T 치료에서 자주 나타나는 심한 염증 반응이나 거부반응의 위험이 훨씬 낮으면서도 효과는 비슷해서, 혈액암은 물론 폐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고형암으로도 임상시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직공학 분야에서는 줄기세포와 인공 재료로 연골, 혈관, 방광 같은 조직을 미리 만들어 이식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유전자를 몸속에서 직접 고치는 기술도 임상 자료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국내에서 허가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60건을 보면, 세포치료가 전체의 70%로 압도적으로 많고 CAR-T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치료가 13%가량을 차지하며, 대부분 암이나 혈액암을 대상으로 큰 대학병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의료의 이제 몇몇 연구자만의 실험이 아니라, 국내 주요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새로운 진료 분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첨단재생의료 준비 상황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 전도, 교육을 실천하여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다"는 사명 아래 운영되는 기독교 정신의 병원입니다. 병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가운데 "회복과 미래지향"은 위기를 기회로,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미래를 이끄는 첨단의료의 중심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어,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는 첨단재생의료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 병원"이라는 가치는 환자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새로운 치료 기술을 준비하는 이유가 다른 병원과의 경쟁이 아니라 환자 한 사람이라도 더 회복시키려는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본원은 2022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정식 지정을 받아,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이미 갖추어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세 가지 방향에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의 새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차원의 연구비와 협력망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한 병원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연구비와 장비 투자를, 지역의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함께 풀어가려는 시도입니다. 둘째,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NK세포 치료 분야에서 전문 기업인 N***과 함께 관련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개발은 병원의 임상 경험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려워서, 세포 배양과 품질 관리에 특화된 전문 기업과 힘을 합쳐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셋째,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를 안전하고 일정한 품질로 만들어내는 필수 시설인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시설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 자체가 치료제이므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을 막고 품질을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GMP 시설을 스스로 갖춘다는 것은 연구 성과를 실제 환자 치료로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일이며, 앞으로는 다른 기관의 생산까지 맡아주는 지역 거점으로 자랄 가능성도 열어 줍니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의료 인프라를 생각하면, 지방 대학병원의 이러한 준비는 지역 환자들이 먼 길을 가지 않고도 최신 치료를 받게 한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법적 자격, 지역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전문 기업과의 협력, 자체 제조 시설 구축이라는 네 가지를 차례로 갖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재생의료의 미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재생의료는 한 가지 기술에만 기대기보다, 여러 기술을 잘 짜맞춘 "맞춤형 치료"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세포의 종류나 유전자를 옮기는 방법 하나만으로는 치료 효과가 정해지지 않으며, 세포를 어떻게 만들고 어디로 전달하는지, 그리고 주변 몸속 환경을 어떻게 맞춰주는지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기술, 정교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여러 질환에 두루 쓰이는 공통 부품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큼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세포로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줄기세포·NK세포 치료제가 더 늘어나고, 몸속에서 직접 유전자를 고치는 기술의 임상 자료도 계속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가노이드라 불리는 작은 미니 장기 모형이나 3차원 바이오프린팅 기술도 조직·장기 재생 분야에서 점차 실제 치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세포 품질을 실시간 확인하고 생산 과정을 다듬으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합쳐지면, 환자의 세포를 채취해 인공지능이 배양 조건을 조절하고 표준화된 GMP 공정을 거쳐 며칠 안에 치료제를 만드는 일이 지금보다 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넘어야 할 어려움도 많습니다. 세포치료제는 여전히 비용이 높아 환자 한 사람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지켜보는 안전성 자료가 더 필요하며, 치료 혜택이 큰 병원에만 몰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백여 년 동안 신화 속 상상에서 실제 치료제로 이어져 온 발걸음을 돌아보면, 앞으로 10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학계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6. 믿음의 눈으로 보는 첨단재생의료

성경은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여러 차례 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낮게 하리라"고 말씀하며, 욥기 5장 18절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몸이 스스로 상처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 바로 재생医료가 다루고자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몸 안에 심어 두신 은혜의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시편 139:14)고 고백했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스스로 나뉘고 다시 자라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록 이 고백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첨단재생医료가 모든 병을 고치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의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담긴 회복의 원리를 더 깊이 발견하고 더 많은 이웃을 도울 도구를 얻게 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첨단재생医료를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를 실천하라는 병원의 사명을 이 시대에 맞게 감당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한 해의 수고가 열매로 드러나는 가을처럼, 오랜 기초 연구와 준비의 시간이 쌓여 마침내 환자를 살리는 치료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7. 맺음말

프로메테우스의 간이 밤마다 다시 자라났다는 신화는 원래 벌 받는 이야기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상상을 병을 고치는 희망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서 갖춰온 법적 자격과, BIS-TEP 연구개발 사업 참여, NK세포 연구 준비, GMP 시설 추진은 지역 병원이 할 수 있는 몫을 채워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생의료가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화려한 발표보다도 이런 준비가 꾸준히 쌓여가는 데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는 "회복과 미래지향", "사랑과 선한병원"이라는 병원의 핵심가치를 실천해나가는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준비와 연구의 과정 위에, 상한 자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감사의 말

이 글은 최근 발표된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문 용어를 최소화하여 작성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주치의(신장내과 전문의, 투석 전문의 등)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 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신장내과 교수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장기이식연구소 소장
- 현, 대한신장학회 유전신질환연구회 회장 / 아시아이식학회 재무부이사
- 현, 사단법인 생명잇기 총무이사
- 현, 대한이식학회 기획위원회 / 학술위원회 위원
- 전, 미국 하버드의대 BWH 신장내과 교환교수 / 이식연구센터 연구원



전문진료분야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유전 신장 질환,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특수클리닉
오후	외래		외래	외래	



503병동 간호사
최경문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하나씩 배우며,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간호사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9월 503병동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최경문입니다. 긴장과 설렘을 안고 처음 병동에 들어섰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덧 입사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던 병동의 풍경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503병동은 소화기내과를 주 진료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시경과 각종 시술을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등 다양한 질환과 치료 과정을 가진 환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환자마다 상태와 치료 과정이 다른 만큼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투약과 처치, 검사 준비, 활력징후 측정, 환자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설명 등입니다. 입사 후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쁘게 돌아가는 병동에서 여러 업무가 한꺼번에 주어졌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급해지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 해야 할 일까지 미리 생각하며 업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서 예전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어려운 업무를 마주하면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초기처럼 막연한 두려움에 머무르기보다는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에는 든든하게 도움을 주시는 병동 선생님들이 있기에, 한 번 더 배우고 다시 해낼 수 있다는 힘도 얻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간호사인 만큼, 환자와 보호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궁금한 점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단순히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간호사를 넘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작은 순간에도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맡은 자리에서 차분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내과계중환자실 간호사
홍우혁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받은 사랑을 이어가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11월부터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홍우혁입니다. 내과계 중환자실 25사번 동기들 가운데 가장 늦게 입사했던 제가 어느덧 3년 차 간호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 나지 않을 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간호사를 꿈꿔 왔고, 다른 어떤 병원보다도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이 병원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동생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시던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간호사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간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내과계 중환자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작은 실수 하나도 환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기에 늘 긴장하며 업무에 임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하루 동안의 업무를 되돌아보며 ‘잘했을까’, ‘놓친 부분은 없었을까’를 생각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곁에서 든든하게 이끌어주신 내과계 중환자실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고, 실수를 했을 때도 질책하기보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혼자가 아니다’라는 든든함을 느끼며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과계 중환자실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 또한 선생님들께 받은 배려와 가르침을 잊지 않고, 후배 간호사들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고 정성을 다해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힘든 순간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환자에게는 믿음을, 동료에게는 힘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받았던 사랑과 배려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며,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332병동 간호사
강경미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1년 전의 나에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9월에 입사하여 332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강경미입니다.

작년 가을,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던 날이 얼마 전 일처럼 생생합니다. 어느덧 입사했던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조금 실감 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서툴렀지만, 좋은 선생님들에게 배우며 하루하루 어제보다 나은 간호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332병동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주 진료과로 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작아 만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아기부터 소아, 성인까지 연령과 질환이 다양하다 보니 환자마다 필요한 간호와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도 다릅니다. 그만큼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 간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수술 및 검사 전후 간호, 약물 투여, 수혈, 항암제 투여 등 치료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간호를 제공하면서 환자의 마음도 함께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아 불안해하는 환자도 있고, 오랜 치료로 지친 환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작은 처치 하나를 할 때도 순서를 머릿속으로 여러 번 되짚어보며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늘 긴장한 상태로 일하다 보니 하루를 마치면 몸도 마음도 지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간호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있어 병동 선생님들께 자주 여쭙보지만, 예전처럼 ‘뭘 해야 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머무르기보다는 먼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렵게 느껴져 눈물도 많이 흘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의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어렵고 서툴지만, 매일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는 너를 만나게 될 거야.”

간호사를 꿈꾸었던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함과 정확함을 갖춘 간호를 실천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금처럼 하나씩 배우고 경험하며, 환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를 소개합니다 | 여덟 번째 의료정보관리실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병원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병원의 모든 의료정보를 연결해 더 나은 진료를 만드는 곳
의료정보관리실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생성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료정보'(Medical Information)입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모든 진료 과정은 의료정보로 기록됩니다.

의료정보관리실(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Department)은 이러한 의료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가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여 진료, 연구, 교육, 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부서입니다.

2018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무기록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병원도 '의무기록실'에서 '의료정보관리실'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료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의 의무기록은 종이 의무기록에서 광파일과 영상의무기록을 거쳐 현재는 차세대 EMR(Yirehnet) 통합의료시스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료정보관리실은 이러한 디지털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확한 의료정보 관리와 데이터 활용을 통해 미래 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정보관리실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포함한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확한 기록이 안전한 의료를 만든다'는 사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관리실은 어떤 일을 할까요?

① 정확한 진료기록을 관리합니다.

정확한 의무기록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입니다.
의료진이 작성한 의무기록이 법적 기준과 작성 원칙에 맞게 작성되도록 관리합니다.

- ◆ 의무기록 완결성 관리-의무기록 작성교육, 미비제로 이벤트 포상
- ◆ 재원 및 퇴원환자 기록 관리
- ◆ 기록의 적시성 및 작성기준 관리
- ◆ 의무기록 정정 및 이력 관리



② 질병과 의료행위를 표준코드로 분류합니다.

환자의 진단과 수술, 처치 내용을 국제 및 국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합니다.
정확한 질병분류는 진료통계, 보험청구, 의료질 평가 및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 ◆ 주·부진단 및 기타진단과 수술에 대한 코드 부여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관리
- ◆ 임상진단명과 임상수술명 관리
- ◆ 입원 시 상병(POA) 관리
- ◆ 진단코드 정확성 관리
- ◆ 한국형진단관리군(KDRG) 질병군 생성 및 관리

③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의료정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병원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축적된 의료데이터는 병원의 경영 및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 퇴원환자 분석
- ◆ 진료실적 통계
- ◆ 질병 및 수술 통계
- ◆ 경영 및 연구자료 제공
- ◆ 의료질 향상(QI) 지표관리
- ◆ 각종 의료정보 분석 및 보고

④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환자의 소중한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또한 의료정보관리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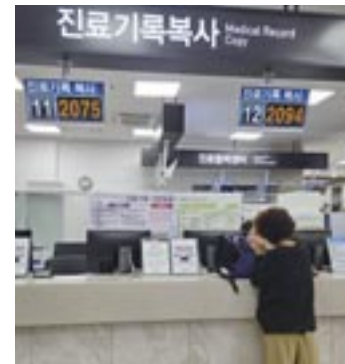
- ◆ 의무기록 접근권한 관리
-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 의무기록 열람 및 대출관리
- ◆ 진료기록 사본발급 관리
- ◆ 의무기록 보존 및 폐기관리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 뉴스레터 발행



⑤ 의료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정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 의무기록 및 EMR 서식 관리
- ◆ 전자동의서 시스템 운영
- ◆ 영상EMR(OCR) 관리
- ◆ 공동인증서 관리
- ◆ 의료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⑥ 병원의 평가와 국가 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합니다.

의료정보관리실은 병원의 각종 평가와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확한 의료정보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국민 건강 향상의 기초가 됩니다.

-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 의료기관 인증평가
- ◆ 의료질 평가
- ◆ 적정성 평가
- ◆ 수련환경평가 지원
- ◆ 국가암등록사업
- ◆ 퇴원손상심층조사
- ◆ 사망원인 보완조사
- ◆ 심정지환자 조사 등 국가 통계 제출

병원의 미래 경쟁력은 의료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환자의 한 줄 기록은 의료진에게는 정확한 치료의 근거가 되고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의학 발전의 출발점이 되며, 병원에는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처럼 의료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병원의 미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료정보관리실은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정보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병원의 의료데이터 컨트롤타워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료정보의 품질 향상과 데이터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진료, 연구, 교육 및 병원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디지털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의료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더 안전한 진료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전문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글 | 권민경 · 간호대학 4학년

Epilogue

스리랑카 의료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도 그곳에서의 순간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일까지 짧지만 많은 만남과 배움이 있었던 스리랑카에서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스리랑카 선교는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신대학교를 주축으로 문화팀이 구성되었고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주축으로 의료팀이 구성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이어 갔습니다. 문화팀은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와 K-POP 댄스 등 K-문화 나눔과 종이접기, 제기차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중 의료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의료 사역 속에서 마주한 순간들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소개하기에 앞서 스리랑카의 의료환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운영되며 의료기관도 1차·2차·3차로 구분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스리랑카는 국가의 세금을 중심으로 국립병원에서 무상진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할 수 있어 국립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며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진료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의료팀의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팀은 학생 15명과 의료진 14명으로 총 29명이 함께했습니다. 7월 2일부

터 3일까지는 수도 콜롬보에 위치한 IIHS 대학교에서, 7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엠빌리피티야에 위치한 Navodaya 병원에서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의료팀은 접수, 영상의학과, 갑상선·유방외과, 산부인과, 대장항문외과, 성형외과, 약국으로 나누어 활동했습니다. 환자가 방문하면 먼저 접수에서 문진과 활력징후 및 혈당을 측정한 뒤 해당 진료과로 안내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약국에서는 조제된 약과 복용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접수에서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대장항문외과에서는 진료 보조와 환자 안내를 담당했습니다. 갑상선·유방외과에서는 초음파 검사도 보조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된 환자와의 만남입니다. 현지 의사를 통해 검사 소견을 전달받은 환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암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인도하실 것이기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도 두려움보다 감사와 믿음을 먼저 표현하는 모습에 저 역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의료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의료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역임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였습



니다. 대장항문외과에서 진료 보조와 안내를 담당할 당시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진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대기 환자 수를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의 진료 방식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세심하게 묻고 직접 복부를 진찰하며 장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환자가 가져온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지, 복용 중인 약도 꼼꼼히 살펴 현재 상태를 설명하셨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체 그림까지 그려 가며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셨고 진료를 마칠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까지 안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내가 지금 이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라면 얼마나 안심되고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 진료과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일 동안 약 1,100명의 환자가 방문했지만 의료진은 많은 환자가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눈앞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 진료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환자들의 표정에서는 안도와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불안과 두려움에 귀 기울이며 마음까지 돌보는 일임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또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계획대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료 공간과 환경에 여러 제약이 있었고 처방이 어려워 약국을 운영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상황이 하나씩 풀려 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겉으로는 많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과 섬김까지 사용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바라보고 진심을 다해 섬기는 마음이 의료인에게 얼마나 중요할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의료와 문화를 통해 현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이번 선교는 저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으로서 고신대학교복음병원과 함께 여러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큰 감사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교를 통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학생이 아닌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간호사로 다시 선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스리랑카의 인사말 ‘Ayubowan(아유보완)’을 전하고 싶습니다. ‘Ayubowan’에는 상대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인사에 마음을 담아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Ayubowan(아유보완).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꿈에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첫 의료선교

글 | 진태랑 · 간호대학 1학년

오랫동안 제 마음에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의료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축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거의 매일 축구를 했고, 새벽에 일어나 해외축구를 챙겨볼 정도였습니다. 한때는 축구 선수를 꿈꾸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여러 상황으로 그 꿈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부모님께서서는 스포츠 분석가와 팀 닥터라는 새로운 길을 제안해 주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금요기도회에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들으며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의료라는 달란트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료선교는 제 삶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품고 제 고향인 인천을 떠나 부산에 위치한 고신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간호학을 배우는 것은 물론, 선교 관련 교양 과목을 통해 선교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료선교훈련원(MMTC) 훈련에도 참여하며 의료선교의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훈련이었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이 있었는데, 종강 후에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당일치기로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료선교를 준비할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잠시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훨씬 귀하다는 믿음으로 감사함 가운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의료선교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간호학과 1학년인 저는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

다. 하지만 그렇기에 병원과 의료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선교에 지원했습니다.

이번 의료선교는 즈엉민쩌우, 빈꽁, 미탄 등 세 지역에서 의료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진료를 마치고 의약품을 받으신 환자분들께 쌀, 식용유, 설탕, 간장 등이 담긴 생필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생필품을 건네드리며 베트남어로 "쑤 먼이 년 꺼(선물 받아주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성조가 있는 언어라 발음은 쉽지 않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환자분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베트남은 종교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는 환경이기에 의료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생필품을 전하는 손길에도, 눈을 맞추는 순간에도, 따뜻한 미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제가 사랑을 전한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제 손을 꼭 잡아 주셨고, 어떤 분은 손주를 바라보듯 제 얼굴을 따뜻하게 만져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지 공무원분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밝은 미소로 함께해 주시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종교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분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통해 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집 안에는 돌아가신 가족의 사진과 향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베트남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베트남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주일에는 롱안 세계로병원에서 개척한 득화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는 모두 베트남어로 진행되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휴대폰에 있는 실시간 번역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어린이 사역에도 함께했습니다. 베트남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 학생의 믿음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트남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더 많은 믿음의 다음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가장 귀했던 시간 중 하나는 룡안 세계로병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는 "한국에서 의료를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베트남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료선교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며, 의료선교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기간에는 잊지 못할 추억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저를 포함한 팀원 아홉 명이 호텔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덥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의 모든 일상이 감사였습니다. 베트남 음식도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 식사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고, 어느새 밥을 두 그릇씩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낯선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배우는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의료사역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의 장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과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수고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이번 베트남 의료선교는 제게 막연했던 의료선교의 꿈을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으로 바꾸어 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의료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의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삶의 더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간호학생이지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걸음을 인도하셨듯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씩 준비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에 방문했던 독화교회와 쉐넌티교회를 비롯하여 베트남 곳곳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땅에 널리 전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의료선교는 저의 의료선교 여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는 것을 넘어, 의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의료선교사로 준비되어 가겠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독자 에세이 #07

가을에 피어난 달개비꽃

글 | 정대운



오늘도 재활의학과 담당 교수의 회진이 끝난 후 휠체어를 타고 입원실을 빠져나와 의과대학 운동장으로 내려왔다. 하반신 마비의 취약한 몸이다 보니 허벅지 고관절의 염증으로 당분간 병원 의료진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항생제 수액 치료 후 둘째 주가 경과한 시점부터는 열도 내리고 붓기가 빠져 식욕까지 되살아나면서 일면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휠체어의 핸들링을 힘차게 팔로 돌리며 간호대학 건물 앞을 지날 즈음 향나무 관목 아래 여러 개의 거미줄을 발견했다. 거미들은 먹이 활동을 위해 끈끈이 거미줄을 콩무늬에서 뿜아내어 정교하게 그물을 치고 나비나 날파리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동안 나는 거미줄을 정신 놓고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거미줄 아래 풀밭 가장자리에 짙은 남색 꽃이 앙증맞게 피어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닭의장풀, 일명 달개비꽃이었다.

병고에 약간은 지쳐 있던 나에게 산뜻하고 예쁜 남색 달개비꽃은 뜻밖에도 큰 위안을 안겨주었다. 가
날픈 모습이 병동의 남색 옷 천사들을 연상시켰다.

그날 이후 의과대학 화단 여러 곳에 산재해 피어 있던 노란 서양민들레꽃과 남색 달개비꽃, 연구동 앞 홀로 외롭게 핀 장미꽃 한 송이를 안 보면 서운할 정도로 눈요기 삼아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한편 마음 한 언저리에는 가을의 초입에 때늦게 피어난 가녀린 꽃들을 바라보며 까닭 모를 연민이 스며들었다. 25년 전 지천명(知天命)¹⁾을 한 해 앞두고 경북 청도 산업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해 고신의료원으로 이송되었었다.

10시간의 수술 끝에 결국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마비의 판정을 받았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 온 가족은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돌이킬 수는 없었다. 복음병원 재활치료 후 사직동에 구장이 있던 론볼²⁾이라는 스포츠 종목을 만나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23년 동안 각종 전국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등 나름의 쾌거도 이루었다. 마음도 한층 밝아졌다.

오늘날 내가 누리는 모든 긍정적인 결과들은 지금은 정년퇴임하셨겠지만 일찍이 수술을 집도하셨던 신경외과 전병환 교수님, 재활의학과 정호중 교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 지천명(知天命): 공자가 『논어』에서 "오십에 천명을 알았다(五十而知天命)"고 한 데서 유래. 50세를 이르는 말.

2) 론볼(Lawn Bowls): 잔디(또는 인조잔디) 위에서 편평한 공(Bowl)을 굴려 목표구(잭, Jack)에 가장 가깝게 보내는 경기이다.

난니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종목으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출처: 대한장애인농구연맹, 대한체육회 스포츠백과]

이번 참에도 20여 일간 입원해 있던 동안 세심하고 극진하게 치료해 주셨던 재활의학과 심영주 교수님,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셨던 성승태, 강명훈, 정치현 전공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또 환자들에게 하나같이 세심하고 상냥하게 대해 주셨던 505병동 모든 간호사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특히 밝은 미소로 친절히 대해 주셨던 최미정, 원현지, 이소희 간호사님과 김예슬 실습 학생이 기억에 남는다. 남색 옷 천사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또 20여 년 동안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해주신 물리치료실 허태영 실장님, 유승룡 치료사님, 설연임 작업치료사님, 김주진 주임님, 고맙습니다. 주차관리실 박종재 계장도 날 보면 "행님아, 왔나?" 하며 입고 하는 차를 정리해 가며 주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박 계장, 고마워...

성산(聖山) 장기려 박사님의 유훈에 따라 오늘도 그늘진 음지에서 신음하는 힘없고 아픈 서민들에게 의료를 통해 넓은 인류애를 베푸는 아름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다른 병원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세요.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라는 말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넓은 가운을 입고 인술(仁術)³⁾을 베푸는 복음병원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부산광역시 장애인론볼연맹 고문 정대운

독자에세이 원고모집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 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3) 인술(仁術): 의술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의 숭고한 정신을 뜻함.



낙동강 변, 민족의 영산... 김해 백두산

글 | 노경만 산 · 여행작가



낙동강과 부산 북구의 시가지, 그 너머 금정산의 능선 ▲

仁者樂山 智者愛山 勇者護山 ‘어진 사람은 산을 즐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산을 사랑하며, 용기 있는 사람은 산을 보호한다.’ 백두산 정상석에 새겨진 글귀이다. 멀지 않은 낙동강 변에 민족의 영산인,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산의 이름과 의미가 똑같은 백두산이 있다.

김해의 백두산白頭山(352.9m 정상석 표기 기준)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괴정리, 초정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우리나라의 최고봉인 백두대간의 백두산(2,744m)과 한자 이름이 똑같다. 신경준의 <산경표山經表>에 의하면 한반도를 이루는 산맥의 끝점인 북쪽의 백두산과 대칭되는 시발점이 되는 산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백두대간의 종착점인 지리산에서 이어지는 낙남정맥의 끝자락에, 우리나라의 대동맥 격인 낙동강의 끝자락에 자리한 김해의 백두산. 한반도의 산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백두산으로 끝난다고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산행의 의미가 새롭다

아직 무더위가 기승인 8월에 산행을 간다니, 생각만으로도 걱정이 엄습한다. 꼭 가야 한다면 멀지 않고, 너무 높지 않고, 그리 거창하지도 않아서 안전한 산. 그런 고민 끝에 선택한 곳이 민족의 영산이 라니, 약간의 상상을 더하니 산행의 의미가 새롭고, 사뭇 설레기까지 한다.

출발은 대동초등학교 옆이다. 교문 옆 나무계단을 오르면 산행길로 바로 접어든다. <백두산누리길>로 명명된 길 중 첫 구간인 <가야의 길>을 걷는다. 몇 개의 무덤을 지나고 잡목숲이 우거진 약간의 오름길이며 흙길이다. 바람이 잠잠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거진 잡목숲 덕에 햇빛도 잠잠하다. 그렇지만 땀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모양이다. 걸음이 더해질수록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난 듯 땀이 줄줄 흐른다. 배낭이 무겁지만 넉넉하게 준비한 얼음물이 참으로 고마운 순간들이 연속이다.





▲ 육형제소나무



▲ 백두산 정상 오름길

살짝 햇볕이 드는 쉼터를 지나면서부터는 <명상의 길>이다. 이 구간은 자주 하늘이 보이고, 눈부시고, 땀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더러 백두산 정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솔향이 그윽하다. 길은 거의 평지의 산책로 수준으로 이어지다가, 사거리와 만나면서 끝난다. 하나는 원명사로 가는 길이며, 두 개의 길은 정상으로 난 길이다.

우측으로 난 널찍한 길이 <편백의 길>로 정상으로 이어진다. 편백나무 향기 가득한 너무 걷기 좋은 길 내내 자그락자그락 발바닥에 밟히는 작은 자갈 소리가 기분을 좋게 한다. 자갈 밟히는 소리는 편백 향기에 실려 운동시설이 있는 쉼터까지 멈추지 않고 들린다.

지금까지는 산책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등산의 시간이다. 쉼터 이후부터 길은 많이 경사가 심해지고 거칠어진다. 돌부리에 차이고, 나무계단을 오르고, 거친 숨소리와 가쁜 호흡과 온몸을 적시는 땀방울까지……. 아마도 정골마루쉼터에 다다를 때쯤이면 비 맞은 생쥐 꼴이 될 것이 분명하다.

흘린 땀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다

정골마루쉼터에는 백두산에서 유명한 <육형제소나무>가 있다. 그러나 세월과 병마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사실인 양 지금은 2형제만 남아 그 모습이 소소하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길을 잡아 산행을 하고자 한다면 선무봉을 지나서, 새부리봉과 동신어산으로 갈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로는 장척산과 생명고개를 지나 신어산이나 까치산으로도 갈 수 있다. 백두산 정상은 남쪽으로 길이 이어진다. 조금 전 올라왔던 길보다 더 가팔라지고 거칠어진 계단 길이 약 0.3km 내내 연속이다. 잠시 앉아서 쉬고 물 마시며 말렸던 몸이 다시 흠뻑 젖는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는 순간, 그늘도 없는데 시원해지고 바람도 없는데 순식간에 땀이 마르는 느낌이다. 오르는 동안 조망이 없어 더 무덥게만 여겨졌던 산행의 기억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다. 백두산 옆으로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의 물줄기를 보는 순간이, 바라보이는 그 풍경이, 오르며 흘린 땀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는 기분이 든다.

백두산 정상에 천지는 없다. 작은 정자 하나와, 빙 둘러 펼쳐진 나무 마루와, 가을의 전령사처럼 활짝 피어난 강아지풀과, 민족의 영산답게 태극기가 펄럭인다. 그리고 바라볼수록 더 시원해지는 풍경이 함께 있다.

북쪽으로는 선무봉 장척산 동신어산과, 강 너머 오봉산 토곡산으로 이어진 산줄



▲ 백두산 정상 모습과 정상석

기가 첩첩이다. 동남쪽으로는 김해평야의 넓은 들판과 낙동강의 푸른 물줄기와, 그 너머 양산과 부산 북구의 아파트들이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뒤로 국립공원 금정산의 긴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서쪽으로는 나무가 키 크게 자라 풍경이 보이지는 않지만 정자 너머로 저무는 저녁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샌가 서둘러 떠오른 달이 하얗게 반기는데,

보름이 멀지 않았으니 이제 가을도 많이 가까워졌나 보다.

내려가는 길은 초정마을 쪽이다. 경사가 있긴 해도 올라올 때보다는 잘 정비된 길로 <편백의 길> 갈림길 사거리까지 쪽 내려간다. 사거리에서는 원명사 방향으로 널찍하고 편안한 임도와 도로를 따라 초정마을까지 갈 수 있다. 

부산에서 도시철도 3호선과 부산김해경전철을 타고 가 산행할 수 있다.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한다면 강서구청역에서 913번 버스를 타면 되고, 경전철을 이용하면 불암역에 내려 인근 정류소에서 82, 82A, 913번 버스를 타고 대동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리면 산행을 시작할 수 있다.

노동은 영혼을 살찌우는 밥

글 | 김희자 수필작가



장맛비가 그쳤다. 화색빛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자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고 방긋 웃는다. 이열치열의 계절 여름이다. 오늘도 중심은 나에게 두고 하루를 연다. 장마가 끝났으니 손님이 좀 있을 테지.

어머니의 조반을 챙겨드리고 일터로 나가다가 마당 언저리에 섰다. 아침부터 정열을 과시하는 해바라기를 보며 나도 방긋 웃는다. 아르바이트하러 가는 곳이 해바라기 맛집이기 때문이다. 마을이 명승지로 지정되자 이 오지에도 식당이 몇 개나 생겼다. 이곳 식당들은 저마다 마을 이름을 앞세워 간판을 걸었지만, 내가 가끔 일손을 돕는 곳은 해바라기 맛집이다. 까닭이 궁금하여 식당 주인인 집안 오빠께 여쭈었더니 울케언니의 별명이 해바라기라 그리 이름 지었다 했다. 울케언니는 별명처럼 방실방실 잘 웃으신다. 인정까지 있어 마음이 절로 간다.

식당에 들어서니 주방장인 해바라기 언니는 찬 준비에 분주하다. 내가 식당일을 도운 지 꽤 되었다. 그 전에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쌓인 그릇을 씻어주곤 했다. 처음엔 혼자 일하는 언니가 안쓰러워 도와주던 것이 어느 날부터 부업이 되었다. 해바라기 언니는 내가 고향에 들어왔을 때 가장 다정다감했다. 집안 울케여서 나를 ‘고모’라 불렀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인가. 살갑게 대해주니 그곳으로 발길이 절로 갔다.

관광객을 상대하는 식당이라 주말이나 연휴에는 붐비지만, 평일은 한가한 편이다. 인력 쓰기가 애매하여 고심하는 모습을 봐오다 돕기로 했다. 종일토록 일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았을 텐데 바쁜 시간에만 도와주는 것이라 견딜만했다. 생각지도 않았던 시급까지 주었다. 그래야만 서로 부담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육체적인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냥 도와줄 때보다 책임감이 생기고 보람도 있었다.

농사보다 힘든 것이 식당일이라 하더니 실로 그랬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요령이 없었다. 서둘러서 칼에 베이고 찢리고 화상을 입는 일이 허다했다. 설거지를 계속했더니 손가락이 붓고 손톱 자랄 틈이 없었다. 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 어지럽기까지 했다. 무거운 뚝배기와 낫그릇 때문에 손목이 시큰시큰... 하나 오기가 생겼다. 온몸이 쉬시고 아파도 하룻밤 자고 나면 통증이 사라졌다. 차츰 요령을 터득했다.

육체적 노동의 대가는 값졌다. 돈을 모으는 재미 또한 쏠쏠했다. 노동의 가치를 톡톡히 느끼며 목

적 하나가 생겼다. 힘겹게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다. 미루고 있던 작품집을 가을에 내기로 마음먹었다. 정신적인 노동으로 낳은 원고와 육체적 노동의 대가로 엮은 작품집이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는 고통이 아니었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천년의 내공은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 바로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다.

욕심이 생겼다. 매일 일하고 받은 현금을 봉투에 모았더니 하루가 다르게 두둑해졌다. 일에 지친 날에는 봉투를 옆에 두고 대자로 누워 잠들었다. 길었던 하루가 끝나면 내일을 위한 휴식 시간이 필요했다. 장마가 끝나고 휴가철이 시작되자 관광객이 더욱더 많아졌다. 불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칠월처럼 나의 하루하루도 치열했다.

며칠 전, 한창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글방 K 선생님의 전화였다. 일하던 중이라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차에 전화가 끊겼다. 식당일 하는 것이 무에 부끄러운 일이겠나 싶어 전화를 걸었다. K 선생님은 어찌 지냈냐며 안부를 물었다. 나는 “지금 식당일을 하고 있어요.”라며 실토했다. 그랬더니 K 선생님은 “가장 인간적인 일을 하고 계시네요.”라며 오히려 응원했다. 나는 일말의 부끄럼도 없었다. 누가 어찌 보든 상관없었다.

식당을 찾은 어느 지인은 “작가님이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라며 안쓰러워했고, “글은 언제 쓸 것이냐?”며 걱정하는 이도 있었다. 하나 이 또한 나에게겐 큰 체험이며 공부이다.

데이비드 소로우는 ‘육체적인 노동은 제2의 명상과 같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하는 걸 원치 않는다. 육체노동은 성실한 것이며 종교의식처럼 신성하다. 인간에게 이만큼 성숙과 자아실현을 더 해주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사람은 일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일이 즐겁다면 인생은 극락이요, 일이 괴롭다면 인생은 지옥일 것이다. 육체적 노동은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엄연한 행위이며 위대한 생각은 명상에서부터 나온다.

삭신이 쏘일 때는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도 싶다. 하지만 이 또한 나 자신과 싸움이다.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하라는 공자의 말씀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름 한 철을 치열하게 살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며 결실의 가을을 기다린다. 글은 영혼의 지문이며 내 심장의 노래, 육체적 노동은 내 영혼을 살찌우는 밥이다. ♡

● 진료를 시작합니다 ●



김기현 교수 | 위장관외과

전문진료분야 |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대사비만수술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박정현 교수 | 신경외과

전문진료분야 |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최소운 교수 | 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분야 | 소아소화기영양분과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체장), 소아염증성장질환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화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전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송관영 교수 | 신장내과

전문진료분야 | 신장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외래

화합과 소통의 공간 '칭찬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환자와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 모습, 닮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일터를 사랑하고, 환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던 초대병원장故 장기려 박사님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습니다! 칭찬릴레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바랍니다.

혈액종양내과 이호섭 교수님 추천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정원길**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따뜻함을 잃지 않도록 진료에 임하고 계십니다. 특히 의학적 치료를 넘어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를 향한 배려와 헌신, 그리고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리더십 또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진심 어린 행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정원길 교수님

부족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늘 함께 뛰어주고 있는 팀원들 덕분입니다. 임원형, 자문형, 가정형, 소아청소년형 및 연명의료 각 파트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중증소아 재택사업도 잘 정착되어, 도움이 필요한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화부 김원복 여사님 추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조은아** 간호사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마주치는 모든 분들에게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를 건네며 병원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특히 환자와 동료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자기 일처럼 앞장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환자분을 한결같이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대하며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네시는 모습에서 참된 간호사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정성과 마음으로 병원을 더욱 빛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조은아 간호사 선생님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모두 소중한 분들이기에, 만날 때마다 반갑고 미소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도 더욱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회복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원무부 채진 계장님 추천

박효철 선생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원의 뼈대를 지탱하는 전산 업무의 고단함 속에서도 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특히 병원의 미래를 위한 '모바일 업무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롭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아,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장시간 모니터 앞에서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환경과 건강상의 염려 속에서도 병원의 발전과 동료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혁신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병원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박효철 선생님을 진정한 고신인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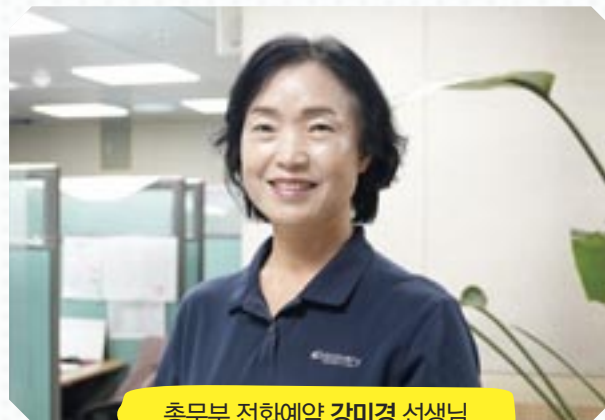


전산과 박효철 선생님

칭찬 릴레이에 저를 추천해 주신 채진 계장님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원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칭찬 릴레이를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닦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칭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많은 분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김은숙 선생님 추천

총무부 전화예약 **강미경**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진료과를 찾지 못해 문의한 환자께 직접 관련 진료과를 안내하고, 산업재해 진료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병원을 처음 경험하는 환자께 예약전화는 병원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늘 친절하고 세심하게 환자를 안내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따뜻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강미경 선생님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총무부 전화예약 강미경 선생님

장기려 박사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세워진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서 이동으로 아직 업무에 익숙한 점이 많지만, 힘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천해 주신 직업환경보건센터 김은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로 일하는 부서인 만큼 수많은 사연을 안고 문의해 오시는 환우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2026년 8월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 병원 친절직원**

331병동 | 332병동 | 342병동 | 351병동 | 352병동 | 362병동 | 503병동 | 504병동 | 505병동 | 507병동 | 508병동 | 509병동
| 511병동 | 525병동(호스피스) | 방사선종양치료실 | 보안팀 | 복음찬양단 | 소화기내과 외래 | 소화기내시경 검사실 | 신생아중환
자실 | 심장내과 외래 | 알레르기내과 외래 | 영양실 | 이비인후과 | 주사실 | 차량계 | 치과

강서진(원무부) | 강성은(혈액종양내과) | 강은경(소화기내시경 검사실) | 강철민(유방외과) | 강태경(산부인과) | 강혜정(전담간호사
계) | 강희원(361병동) | 고경은(피부과) | 고광현(신경외과) | 구나연(혈액종양내과) | 구남이(1일낮병동) | 권경배(PMN) | 김건민
(간호조무보호사계) | 김구상(유방외과) | 김대훈(방사선종양학과) | 김민경(332병동) | 김민주(외과) | 김봉준(심장내과) | 김선경(원
무부) | 김선영(재활의학과) | 김세라(전담간호사계) | 김시은(508병동) | 김연진(509병동) | 김영선(주사실) | 김영채(마취통증의학
과) | 김예솔(505병동) | 김예지(332병동) | 김유림(심장내과) | 김윤경(신경계중환자실) | 김정은(351병동) | 김정희(352병동) | 김
지연(미화부) | 김지연(정형외과) | 김지환(신경외과) | 김찬미(원무부) | 김하영(509병동) | 김현경(간호조무사계) | 김혜경(351 병동)
| 김혜란(주사실) | 김호진(간담체내과) | 김희원(전담간호사계) | 노경영(341 병동) | 노진욱(외과계중환자실) | 류경은(509병동) |
민근아(1일낮병동) | 박경민(505병동) | 박민호(차량계) | 박선우(511병동) | 박수연(361병동) | 박순식(간호조무사계) | 박시영(통
합검사예약) | 박유나(전담간호사계) | 박은지(소화기내과) | 박은혜(류마티스내과) | 박장미(361병동) | 박진형(성형외과) | 박하민
(352병동) | 박하영(509병동) | 박현진(351병동) | 배주영(332병동) | 서예원(신경계중환자실) | 서지환(원무부) | 성미현(전담간호
사계) | 송수현(1일낮병동) | 송지민(전담간호사계) | 수의명(초음파검사실) | 신성훈(혈액종양내과) | 신운유(352병동) | 신지연
(508병동) | 신지인(509병동) | 신현정(504병동) | 심영주(재활의학과) | 심용우(신경외과) | 안준미(원무부) | 양소원(주사실) | 양혜
지(341 병동) | 양혜현(신경외과) | 오영도(외과) | 왕해진(신경과) | 우한나(진단검사의학검사실) | 원기현(신경계중환자실) | 유상우
(신경외과) | 유진(341 병동) | 윤소라(방사선종양학과) | 윤수빈(361병동) | 윤예림(1일낮병동) | 윤은빈(504병동) | 윤정연(1일낮병
동) | 이가영(원무부) | 이도욱(간호조무보호사계) | 이상(342병동) | 이상욱(간담체내과) | 이성희(간호조무사계) | 이소연(이비인후
과) | 이소희(505병동) | 이수정(마취통증의학과) | 이영은(342병동) | 이유라(외래계) | 이윤지(원무부) | 이은미(혈액종양내과) | 이
정선(신경계중환자실) | 이정욱(간담체내과) | 이주희(508병동) | 이지민(알레르기내과) | 이진아(신경계중환자실) | 이진우(보안계)
| 이창용(신경외과) | 이창빈(간담체내과) | 이하정(507병동) | 이학수(신경외과) | 이형석(성형외과) | 이호섭(혈액종양내과) | 이호
연(512병동) | 임상현(원무부) | 임성일(심장내과) | 임수진(361병동) | 임유경(332병동) | 임지현(진료협력센터) | 임현진(내과(심
장)계중환자실 II) | 장경주(전담간호사계) | 장보영(심장혈관흉부외과) | 장예진(외과계중환자실) | 장윤미(주사실) | 전인수(간호조
무보호사계) | 정경원(소화기내과) | 정다라(안과) | 정다움(511병동) | 정세영(외래계) | 정숙영(1일낮병동) | 정원길(완화의학과) |
정주영(내과계중환자실 I) | 정현(510병동) | 조민진(361 병동) | 조수민(간담체내과) | 조수지(외래계) | 조신영(332병동) | 조유진
(보안계) | 조은혜(351 병동) | 조하연(원무부) | 조하은(주사실) | 주명진(신경계중환자실) | 자유정(361 병동) | 채봉화(신경과) | 최가
은(361병동) | 최빈나(외래계) | 최예림(의료정보관리실) | 최은정(원무부) | 최은지(혈액종양내과) | 최진혁(외과) | 최효선(341 병동)
| 하유준(이비인후과) | 함기주(보안계) | 홍유라(소아청소년과)



최근 3개월 병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와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FOCUS VIEW

고신대복음병원, 메드트로닉 TAVI(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독립시술기관 인증 획득



고신대복음병원이 최근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메드트로닉(Medtronic)으로부터 '에볼루트(Evolut)' 인공판막을 이용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독립시술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TAVI 시술은 심장의 대동맥판막이 좁아져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를 위한 첨단 치료법이다.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허벅지 혈관을 통해 가는다란 관(카테터)을 삽입해 기능이 저하된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시술은 절개 범위가 작아 통증과 합병증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빨라 고령 환자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드트로닉의 독립시술기관 인증은 해당 의료기관이 에볼루트 인공판막을 활용한 TAVI 시술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장내과 허정호·김수진 교수팀은 "TAVI 시술은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빨라 고령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지역 내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2.]

부울경 최초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2년 연속 선정



고신대복음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2025년 부울경 최초 선정에 이어 2026년에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공의 수련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지역·일차·공공의료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수련 환경을 넘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폭넓은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해 6개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2개 기관이 추가돼 총 8개 협력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다양한 환자군과 진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최중순 병원장은 "2025년 부울경 최초 사업 선정 이후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 상생하는 수련 모델을 구축해 지역 의료의 질 향상과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5.]

고신대복음병원, 이스타항공에 공항 휠체어 기증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6월 15일 이스타항공을 이용하는 김해공항 내 이동약자를 위한 휠체어를 기증했다. '하늘길의 건강한 동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부식은 환자 중심의 돌봄이라는 고신대복음병원의 핵심 가치와 고객의 안전한 비행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스타항공의 서비스 철학이 맞닿아 성사되었다. 지상에서의 의료적 배려가 하늘길의 안전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두 기관의 공감대가 바탕이 되었다. 특히 이번 기증은 지난 2월 양 기관이 체결한 '항공 의료 안전 네트워크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해당 협약을 기점으로 고신대복음병원과 이스타항공은 지상과 하늘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현재 양 기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전문의와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실시간 의료 자문 핫라인'을 개설해 하늘길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2026.06.16.]

FOCUS VIEW

로봇수술 2,000례 돌파 기념 '다빈치 SP' 체험 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



고신대복음병원이 로봇수술 2,000례 달성을 기념해 최신 단일공 수술 로봇 시스템인 '다빈치 SP'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수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과대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실제 로봇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학술 교류를 위한 심포지엄으로 나누어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됐다. 최중순 병원장은 "로봇수술 2,000례 돌파는 여러 진료과 의료진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진료라는 병원의 핵심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강수환 로봇수술 센터장(비뇨의학과 교수)은 "이번 체험 행사와 심포지엄이 미래의 집도자가 될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생생하고 전문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로봇수술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 의료인 양성을 통해 최상의 수술 결과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6.22.]

고신대복음병원, 라이트하우스해운대교회로부터 소아청소년완화의료 환아 위한 후원금 전달받아



고신대복음병원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은 6월 23일, 라이트하우스해운대교회(담임목사 홍민기)로부터 병원에서 치료 중인 소아 환아들을 위한 아나바다 운동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라이트하우스해운대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운동을 통해 마련되었다. 교회 측은 모인 후원금의 사용처를 신중하게 고민하던 중, 단순히 널리 알려진 대형 기관이나 단체보다는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곳을 찾고자 고신대복음병원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의 활동을 소개받아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고신대복음병원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통합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2026.06.24.]

스리랑카서 '장기려 정신' 잇는 사랑의 인술 펼쳐

- 7월 1일부터 8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엠빌리피티아 일대서 의료봉사 및 교육·문화 교류 진행



고신대학교와 고신대복음병원이 스리랑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대규모 봉사단을 파견, 국경을 넘는 인술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은 7월 1일부터 8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스리랑카 콜롬보와 엠빌리피티아 지역에서 진행됐다. 봉사단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료와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진이 대거 참여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치료의 기회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이와 함께 구성된 교육문화팀은 현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과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배움과 섬김'의 가치를 나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번 봉사를 통해 현지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장기려 박사의 숭고한 정신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6.07.08.]

F O C U S V I E W

고(故) 이창주 님 유가족, 고신대복음병원 발전기금 기부



병원에서 지난 19년간 근무했던 고(故) 이창주 님의 유가족이 병원 발전기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고 이창주 님은 고신대복음병원 핵의학과 방사선사로 19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병원과 회로애락을 함께했다. 6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를 이어오다 최근 별세했다. 고인의 가족들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헌신과 진심 어린 돌봄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며 먼저 발전기금 기부를 제안했고, 가족 모두가 뜻을 모아 고인의 이름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최종순 병원장은 "오랜 시간 병원 가족으로 함께하며 헌신해 오신 고 이창주 님을 기억하며, 유가족께서 전해주시는 소중한 뜻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고인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병원 안에서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탁해 주신 발전기금은 환자들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과 병원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8.]

심평원 '제5차 환자경험평가' 최우수 1등급 획득



고신대복음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직접 경험한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환자 존중, 투약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 환자 권리 보장, 전반적 평가 등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제5차 평가는 기존 점수 공개 방식에서 처음으로 1~5등급 체계를 도입해 국민이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환자 만족도 조사와 의료서비스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환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 중심 의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순 병원장은 "이번 1등급 획득은 환자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준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기적 박사의 인술 정신을 이어받아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 중심 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02.]

고신대복음병원, 단일 대학병원 최초 '90명 대규모' 남아공·에스와티니 의료봉사단 파견



고신대복음병원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에스와티니 지역에 90명 규모의 매머드급 의료봉사단을 파견하며 국경을 뛰어넘는 인술을 실천했다. 단일 대학병원 단독으로 한국에서 가장 먼 남아공 땅에 90명이라는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파견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매년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하계휴가를 반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소 50명에서 80명에 이르는 대규모 해외 의료봉사단을 연 2~3회 꾸준히 파견해 오고 있다. 이번 아프리카 의료봉사 역시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남아공 의료선교의 연장선으로, 척박한 현지 환경 속에서도 독심 있게 이어온 헌신이 올해로 26년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로 파송한 고신대복음병원 소속 의료선교사의 수가 100명을 넘어선 뜻깊은 해로, 이번 대규모 봉사단 파견을 기점으로 글로벌 의료선교 중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2026.08.16.]

KOSin 사랑in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JMCM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의료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부속 기관으로, 의료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생을 사랑과 봉사, 청빈한 삶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헌신하신 초대병원장 장기려박사님(1911~1995)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 의사이자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2026년 하반기 국내 의료선교

1. 하반기 국내 의료선교

- 2026.06.14.(일) 월드미션교회 참여 인원: 23명, 진료 인원: 52명
- 2026.06.28.(일) 은향교회 참여 인원: 20명, 진료 인원: 52명
- 2026.07.19.(일) 거제호산나교회 참여 인원: 23명, 진료 인원: 66명



2.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봉사 일정

- 2026.10.25.(일) 합성초등학교
- 2026.11.21.(토) 동광초등학교
- 2026.11.28.(토) 진영중앙초등학교

2026년 하반기 해외 의료선교

스리랑카 해외 의료선교 2026.07.01.(수) ~ 2026.07.08.(수)

- 참여 인원: 55명
- 진료 인원: 636명
- 7.2(목)~7.3(금), 콜롬보(Colombo)
 - Inter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cience(IIHS) Multiversity 의료봉사
- 7.5(일)~7.6.(월), 엠빌리피티야(Embilipitiya)
 - Novadaya Hospital 의료봉사



베트남 해외 의료선교 2026.07.10.(금) ~ 2026.07.16.(목)

- 참여 인원: 24명
- 진료 인원: 496명



남아프리카공화국-에스와티니 해외 의료선교: TEAM THANDO “사랑” 2026.08.04.(화) ~ 2026.08.18.(화)

요르단·시리아 난민 캠프 해외 의료선교 2026. 11. 예정

- 참여 인원: 30명 예상
- 진료 인원: 200명 목표

■ 참여·협력·후원 문의: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051) 990-5775



외래진료시간표

2026년 9월 기준

※ 대표전화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990-6119

※ 진료문의는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과	최 종 순	화	월,목	비타민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요법, 자율신경실조증, 만성피로클리닉
	공 은 희	월,수,목	수	비만, 임상영양, 금연, 성인예방접종
	김 미 수	금	월,화,금	가정의학, 기능의학, 비만영양대사, 만성피로클리닉, 금연클리닉, 성인예방접종, 건강증진
	박 은 주		수,목	기능의학, 임상영양학, 고용량비타민요법, 금연, 비만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신 동 훈	월,목	월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최영일	화,금	화	간이식, 간담도, 혈관,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간담췌클리닉
	문형환	해외연수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희귀질환 클리닉 : 매주 수요일 오후
	조지훈	수	화,금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간담췌내과	오영도		수	간담췌외과 일반진료,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상욱	월,수	월,수	간,담도,췌장 질환(간암, 간경화증, 급,만성 간염)
	서광일	화,목	화,목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월,수,금	목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조수민	화,목,금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허재준		화,금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감염내과	진 술	수		원내감염, 에이즈(AIDS), 여행자감염, 면역저하자 감염
	이수진	월,목	화	원내감염, 에이즈(AIDS), 여행자감염, 면역저하자 감염
내분비내과	김부경	화	월,수	비만,당뇨병,갑상선,골다공증,뇌하수체,부신
	박성우	월,수,목	화	당뇨병,갑상선,골다공증
	박태훈	월,화,금	목,금	당뇨병,갑상선,골다공증,뇌하수체,부신
대장항문외과	안병권	화,수		대장암,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이승현	월	월,수	대장암, 직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승훈	목,금	화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문예진		목,금	대장암, 직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두경부갑상선 내분비외과	김구상	수		로봇갑상선수술(경구,액외),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조직검사, 세침검사, 고주파열치료클리닉
	강철민		화	갑상선암 수술, 갑상선 조직검사(세침흡인검사, 중심침생검), 갑상선결절의 비수술적치료(에탄올주입술, 고주파열제술)
류마티스내과	김근태	화,수,금	월,금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 클리닉, 희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전
	김윤경	해외연수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 초음파클리닉, 희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후
마취통증의학과	류시정	월,목		통증관리
	김두식	화	화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암성통증관리
	강동희	금	금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욱	수	수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방사선종양학과	박경란	수,목	화,목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화,수	월,수	유방암, 부인과종양, 허부소화기종양
	유제상	화	화	두경부암, 폐암, 흉선암, 식도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암성통증센터 진료 :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오후
	이수용	월,목		고식적 방사선 치료
비뇨의학과	류현열	월,수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종양클리닉
	최 성	화,목	월,목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전립선클리닉, 요실금클리닉
	김택상	수	월,수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강수환	화,목	화	로봇수술, 비뇨기암, 결석
	백재진	월	목	전립선, 요로결석
산부인과	이태화	월,수,목	월	부인암, 부인종양, 자궁근종,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오영림	월,목	월	고위험 임신, 조산, 모체 태아 의학, 일반 부인과 진료
	윤항구	화,금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산부인과 질환 로봇 수술센터
	강대경	수,목	목	부인종양, 부인과 내분비학(월경이상,폐경,다낭성 난소증후군), 내시경수술
	김은택	화,금	수	부인질환(심부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탈출증), 부인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폐경, 로봇수술, 내시경수술(부인암 분과전문)
성형외과	박진형	월	월,수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형석	수,금	수	피부암, 유방재건, 두경부재건, 눈성형, 소아성형, 당뇨발, 욕창
소아청소년과	김윤수	화	화,목	유방재건(자기조직/임플란트), 유방암 수술 후 재건 및 반대측 유방 성형, 안면 골절 및 외상, 피부종양, 상처 치료
	홍유라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이정현		월,수,목	성장클리닉(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갑상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연규민	화,수	금	소아신경질환(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성민	월,목,금	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소화기내과	최소윤	화,금	수	소아소화기영양분과(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희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전
	박선자	월,수	월,화	응용(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소화기암, 진행암환자 항암치료,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위 및 대장의 생리하변(내시경조음파), 위장관 말초림프종, 기능성소화불량, 과민성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박무인	월,목,금	수	생검법, 에틸리아(비대인분종, 내경 근활활(POEM, POCE), 위식도역류질환, 기능성소화불량, 변, 과민성장증후군, 소화성궤양, 혈관과피부 상부소화기질환, 소화기, 진행암환자의 항암치료,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소장, 소장, 위 및 대장의 생리하변(내시경조음파), 위장관 말초림프종, 기능성소화불량, 과민성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문원	화,목	화,목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베체트장염
	김성은	화	수,목	위, 식도, 십이지장의 용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식도이완불능증, 내시경 근절개술(POEM), 위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관련질환(위말트림프종포함), 위류술
	김재현	금	월,수	대장암 클리닉,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용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대장결장절제술위주), 유전성 대장폴립증후군, 대변이식치료, 기타 소화기질환
	정경원	화,수,금		치료 내시경(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지아(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이영훈		월,목,금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일반 소화기 진료, 치료내시경 (조기 위, 대장암), 위암,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이송현		화,금	검사목적의 내시경 (위, 대장, 캡슐), 용종 (선종) 및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용종 절제술), 일반 소화기 진료
	최윤정	수		검사목적의 내시경 (위, 대장), 소화성궤양, 용종
신경과	손민영	목		검사목적의 내시경 (위, 대장), 소화성궤양, 용종
	유봉구	월,화,수	화	뇌졸중, 치매, 두통, 뇌졸중-치매 클리닉
	김명국	수,목	월,화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김민정	금	금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파킨슨병클리닉
	이진형	화,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치료
	허소영			근전도검사
	전병준	목	월,수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희귀질환 클리닉 : 매주 목요일 오전
신경외과	나주영	월	수,목	두통, 어지럼, 치매, 어지럼 클리닉 : 매주 수요일 오후 , 두통 클리닉 : 매주 목요일 오후
	조혁래	월,수	월	뇌종양,두개저종양,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화,목	화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김도현	월	월,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용우	금	목,금	뇌혈관질환, 뇌수두증, 뇌종양,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이학수	수	수,목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혈관내 수술, 급성 뇌경색 신경중재치료, 자발성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 신경계 중환자치료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신장내과	임 학	월,수,목	수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 연 순	화,목	화,목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매주 목요일 오후
	신 호 석	월,수	월,수,목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유전 신장 질환,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김 예 나	화,금		만성 콩팥질환, 급성 콩팥손상, 사구체 신염, 신장이식
	송 관 영		금	신장질환
심장내과	차 태 준	월,화,금	월,화,목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 정 호	월,수,목	화	심혈관 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흉통클리닉, 고혈압클리닉
	임 성 일	월,수,목	수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 봉 준	금	월,화,목	심부전, 폐고혈압
	김 수 진	화,목	수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여성심장
심장혈관흉부외과	박 성 달	월,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김 중 인	화,수	화	일반흉부, 폐기종, 기흉,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흉부외상, 하지정맥류
	이 해 영	월,목	월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정맥질환, 흉부외상, 성인심장질환, 체외막산소화장치, 하지정맥류
	고 택 용	금	수,목	폐암, 종격동종양, 흉강경 및 로봇수술
	이 상 준	화,목	월	망막(황반변성, 망막박리, 망막전막, 황반원공, 당뇨망막증), 포도막(홍채섬모체염, 포도막염), 유리체(유리체출혈, 유리체 혼탁), 백내장, 인공수정체탈구
안과	이 승 욱	월,수	목	녹내장(시신경유두부종, 시신경유두혈종, 시신경손상), 백내장
	김 창 주	금	화,수	소아안과, 사시, 복시, 근시, 성형안과, 신경안과(시신경염, 시신경병증) 안종양, 안외상, 눈물길, 화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전
	김 신 동		금	망막, 일반안과질환
알레르기내과	김 희 규	월,수,목	월,목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최 길 순	화,금	화,금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오 지 현	수,금	화,수	만성기침,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등
암성통증센터	유 제 상	월,금	금	방사선치료(두경부암, 폐암, 흉선암, 식도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온열치료, 고압산소치료, 암성통증조절
	김 미 수		수	고양방 비타민치료, 면역치료, 암성통증조절
완화의학과	정 원 길	월,화,수,목		호스피스 완화의료
	공 섬 김		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위장관외과	윤 기 영	월,목	월	위장,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서 경 원	화,수	화	비만대사수술, 위암수술, 탈장수술, 외과대사영양학
	김 기 현	금	수,금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김 윤 홍		목	복강경, 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유방외과	김 구 상	월	목	로봇유방암수술, 유전성 유방암, 입체정위생검
	최 진 혁	수,금	수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입체정위생검, 유방양성질환
	정 성 의	화,목	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응급외과	강 철 민		월,금	유방암 일반/로봇수술, 유방 미세석회 조직검사(입체정위생검), 양성유방질환의 비수술적치료(진공보조흡인절제-맘모토)
	정 주 원		화	응급외과
이비인후갑상선 두경부외과	김 영 식		수	응급수술
	권 제 환	월,목	화	중이수술, 난청, 어귀염, 귀의 염증, 성음성장애, 고막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볼 켈로이드, 중이 잔존종 비파, 측중, 비정형, 안면재건, 안와골절, 비골골절, 코피, 신재 특별 진찰
	이 형 신	월,수,금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철, 상대 필러
	김 주 연	화	월,목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 무호흡증, 코피, 코성형 클리닉, 이명, 어지럼증
	김 영 준	화,목	수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재활의학과	김 동 영	수	수,금	난치성 부비동 질환, 부비동 종양, 알레르기 비염, 후각 장애, 수면무호흡증, 코피, 기능적 코성형, 안면외상, 편도질환
	심 영 주	목	월,수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암재활
	정 호 중			척수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정신건강의학과	전 향 배	화,수,금	목	뇌신경재활, 척추손상재활, 근골격계
	김 호 찬	목	월,수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낮병동(조현병, 기분장애), 재발방지클리닉
	이 상 신	해외연수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암환자 정신건강 클리닉
	김 현 석	화,목	화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전 공 의	월,수,금	월,수,금	정신건강의학과 일반진료
정형외과	권 영 호	월	수	수부, 주관절, 흉곽출구증후군
	정 소 학	화,목		근골격계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 창 수	월	수,목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 지 연	수,금	월	무지외반증(최소침습수술), 발·발목 질환 및 외상, 발목 연골손상 및 관절염, 발·발목 변형 교정, 만성 상처(고압산소치료)
	심 대 무	수~금	월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직업환경의학과	오 현 철	월	화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정 지 현	화,금	화,금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 현 숙	월,목	월,목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치과	김 희 진	휴직		치과보존과
	서 고 은	화,수,금	금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 감염, 외상, 임플란트, 매복치, 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 은 숙	화,수,금	화	치과 보철과 일반질환
	김 민 경	월,목	수,목	치주과 일반진료
	우 혜 문	월	월,수,금	보존과 일반질환(충치치료, 근관치료, 치아 외상, 치아 재식, 치아 이식, 미세현미경 치료, 임플란트 치과치료, 전신질환자 치과치료 및 기타 치과 질환)
피부과	장 민 수	월,수	월,수	여드름/주사, 건선, 손·발톱색소질환
	박 종 빈	화,수	화,목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서 기 석	화,금	금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핵의학과	성 설 화	목,금	수,금	피부가려움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피부질환, 백반증, 건선
	김 희 영		월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김 범 수		수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혈액종양내과	신 성 훈		월,금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간담도암, 유방암, 비뇨기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 호 섭	월,화,수,목	월,화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 은 미	월,수,목	목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 다 정	해외연수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호흡기내과	정 만 홍	금	화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 태 원	월,수,목	수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 철 호	화,금	수,목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 대 화	수		중증 호흡기 감염질환, 호흡부전, 중환자 호흡재활
	김 대 윤		월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김 도 섭	화	금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1911. 8. 14. ~ 1995. 12. 25.)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의사라 부릅니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라 부릅니다.
의로운 의사라 부릅니다.
바보의사라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살려 헌신하길 원하는
백년의 약속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오늘도
전인치유를 실천 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자경험평가



"항상 그랬다"
라는 응답은
의료진에겐 힘이 됩니다.

2026년 9월~11월
모바일웹 조사 실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발전기금 바로가기